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 Q 방법론 적용

김 혜 진

연세의료원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Types: Q Methodology

Kim, Hye Jin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 of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adolescents. **Methods:** A Q methodology which provided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type was used. Thirty-thre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ed 40 selected Q statements into 9 points standar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PC-QUNAL program. **Results:** Four types of sexual assertiveness manifested by female adolescents were identified: Type 1: Self-normative line-drawing type, Type 2: Pleasure-seeking negotiation type, Type 3: Passive relationship maintenance type, Type 4: future-oriented satisfaction-delay type.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ories by verifying integrated attributes related to the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Results also induced the measuring tools and succeeding studies, and presented educational material for sex education that is tailored to the developmental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adolescents.

Key Words: Female adolescent, Sexual assertiveness, Q methodolog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경험하면서 많은 성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국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키스와 애무 등의 성접촉을 처음 한 평균 연령은 14.3세,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14.8세로 어린 나이였고, 그 대상이 이성 친구가 65.7%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중 44.6%가 성관계 경험을 하였고, 그중 임신한 경우는 17.5%였다[1]. 이것은 청소년의 발달 시기상 성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라는 이름으로 이성교제가 보

편화되어 청소년의 성행동의 범위가 넓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제는 청소년의 성행동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 성적 행위를 과시하고 공유하는 놀이로 바뀌었다[2]. 이러한 청소년 성문화의 변화 속에서 충동적인 위험한 성행동, 데이트 성폭력, 10대의 임신과 성병은 증가 추세에 있다[2]. 특히 데이트 경험이 있는 3명 가운데 1명은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 하고 있는데[3] 십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성경험은 치명적이다.

여성 청소년의 성건강 문제의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4],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5], 오빠와 같은 성 권력을 파트너가 가지고 있을 때[6],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수록[7] 수동적으

주요어: 여성 청소년, 성적 자기주장, Q 방법

Corresponding author: Kim, Hye Jin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4743, Fax: +82-2-2227-6539, E-mail: khjin@yuhs.ac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혜진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Yonsei University.

Received: Sep 10, 2015 / Revised: Nov 5, 2015 / Accepted: Nov 28,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로 대처하여 가벼운 성접촉에서 성건강의 문제까지로 이어졌다. 여성 청소년들이 발달기적 과도기로 성정체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래 분위기나 남자 친구의 압력에 이끌려 성에 대한 감각적 자극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8]. 그러므로 성행동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의사 결정하고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8,9].

이러한 관점에서 성적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위로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며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배양하는 행동적 측면의 성교육의 한 부분이다[10]. 많은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위험한 성행동을 줄이고,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콘돔 사용률을 높였으며[11,12] 테이트 성폭력의 피해 예방과[13] 첫 성교 시기 지연의 역할로[14] 특히 청소년에게 콘돔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위험한 성행동을 예방하는 데 더 나은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15].

이러한 측면으로 고등학교의 제도적 성교육 과정 안에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16], 학교 교과는 주로 거절 위주의 행동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에 한계를 보였다[9].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8,9]. 이들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성적 자기주장 개념을 도입하여 성적 욕구와 감정에 대한 자아성찰에서 협상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개별 발달 수준과 특성이 반영된 내·외부의 해석을 통한 성적 의사결정 과정과 성행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위험한 성접촉을 피하지 못하는 개인 문제에 대한 사정과 그에 따른 전략의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규범, 청소년 발달기의 과도기적 특성, 남자 친구의 스킨십 압박과 또래 친구들의 분위기 등의 상황적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이 어떻게 주관적 인식을 통해 내면의 성적 욕구와 감정, 인지 평가, 행동의 영역을 통합하여 성적 자율성을 재구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처럼 통합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속성을 확인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내면의 해석과 평가가 반영된 개별적 발달 수준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성이 고려된 맥락에서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주관

성이 고려된 개별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 여성 청소년의 성건강 문제에 대한 개별 특성의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해결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여성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을 파악한다.
-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별 특성을 설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절차

1) Q 모집단의 구성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의 방법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고,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총 533개의 Q 모집단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연구 시작 전 본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IRB 2013-1123)을 받았다. 대상자 선정에서 성 관련 개인 경험에 대한 노출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추천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위험성, 이득, 비밀 보장, 연구 도중 중단,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대한 거절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료의 기호화와 잠금 장치 보관으로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였다. 면담은 독립된 공간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으로 다양한 주관적 의견을 얻기 위해 이 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여고생 4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담 뿐 아니라, 각각 2

명과 3명으로 구성된 2개의 초점집단을 통한 집단토의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자의 학교의 종류는 인문계 5명, 실업계는 4명이었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명, 없는 경우는 2명이었다. 면담 내용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친구들의 이성교제 경험, 자신의 이성교제 경험에 대한 감정과 인지, 성접촉 상황에서의 느낌과 인식을 진술하도록 하여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고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지는 남녀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질문지는 심층 면담 내용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청소년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개념을 가진 문항을 찾아내기 위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성교육 프로그램과 측정 도구,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총 533개의 Q 모 집단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2) Q 표본의 선정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의 주제에 속하는 진술문을 통합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고등학생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진술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1인과 Q 방법론으로 학위논문을 쓴 사회복지학 박사 1인, 간호학 여성 건강 전공 교수 3인과, 청소년의 성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활용할 Q 표본을 확정하였다.

이 결과 Q 표본은 5개의 차원, 9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자아보호 차원에는 독립성 지향, 자존감 지향의 2개 범주가 속하였고 성행동의 인지적 평가 차원에는 규범 순응, 결과 예측의 2개 범주가 속하였고 성적 감정 차원에 성적 감정과 본능에 충실의 1개 범주가 속하였고 협상 행동 차원에는 파트너와 협상의 1개 범주가 속하였으며 외부 상호 관계 차원에는 또래 압박, 파트너의 권력, 파트너와 친밀감 지향 3개 범주가 속하여 총 40개의 Q 표본을 구성하였다. 5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이해와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의 문장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3) P 표본의 표집

연구대상자인 P 표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의 여고생으로 가능한 다양한 특성을 갖도록 이성교제 경험 있는 경우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고등학교 1, 2, 3 학년에 재학 중인 인문계 25명, 실업계 8명으로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Q 표본의 분류

Q 표본의 분포는 -4에서 +4인 9점 척도를 이용하여 Q 진술문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정규분포로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Q 표본 분류가 끝난 후 P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대상자에게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에 대해 카드 선택의 이유와 카드 분류의 기준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고 동의하에 녹취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류된 40개의 항목에 1에서 9까지의 점수를 주어 입력한 후 40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Z-score)를 구하였고, 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Q 요인 분석(Q-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의 4가지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1.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 형성과 유형 간 공통적 견해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P 표본 33명 중 제1유형에 9명, 제2유형은 8명, 제3유형은 3명, 제4유형은 13명이 포함되었고, 각 유형 내에서 요인 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그들이 속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Table 1). 4개 유형의 고유값은 제1유형이 14.86, 제2유형이 2.45, 제3유형이 1.81, 제4유형이 1.40이었다. 그리고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이 62.1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45.03%, 제2유형이 7.42%, 제3유형이 5.48%, 제4유형이 4.25%로 나타났다.

유형 간 상관계수는 유형 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4유형은 .80 제2유형과 제4유형은 .65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Table 2), Q 방법론에서는 R 연구에서의 요인 분석방법과 달리 각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형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17]. 유형 간 상관관계수가 높은 것은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관련하여 4개의 유형에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No.	Grade	School	Religion	Type of residence with parents	Monthly income (10,000 KRW)	Experience of dating (person)	Extent of skinship	Extent of friend's skinship	Factor weight
Type 1 (n=9)	7	2	Academic	None	Parents	400 ↓	1	None	None	1.238
	9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400 ↓	None	None	Hugging	0.806
	14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400 ↓	2	None	Hugging	0.539
	15	3	Academic	Christianity	Separately	400 ↓	5 more	Hugging	Hugging	1.421
	17	3	vocational	Catholic	Father	400 ↓	5 more	Hugging	Shoulders	1.191
	21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500 ↓	5 more	Hugging	Hugging	1.129
	23	1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500 ↑	5 more	Hugging	Intercourse	0.692
	31	1	Vocational	None	Parents	400 ↓	5 more	Intercourse	Intercourse	0.846
	33	1	Vocational	Buddhism	Parents	200 ↓	4	Hugging	Hugging	1.067
Type 2 (n=8)	1	2	Academic	None	Parents	400 ↓	None	None	Hugging	1.542
	12	2	Academic	None	Parents	500 ↑	1	None	Hugging	1.026
	16	3	Academic	Catholic	Parents	400 ↓	5 more	Intercourse	Intercourse	0.831
	20	2	Vocational	Christianity	Parents	400 ↓	5 more	Hugging	Hugging	0.498
	22	2	Academic	None	Parents	200 ↓	5 more	Intercourse	Intercourse	2.091
	25	1	Academic	Buddhism	Parents	500 ↑	5 more	Hugging	Hugging	0.815
	26	1	Academic	None	Parents	500 ↓	5 more	Hugging	Hugging	0.984
	28	3	Vocational	None	Parents	400 ↓	5 more	Intercourse	Intercourse	1.391
Type 3 (n=3)	3	2	Academic	Christianity	Mother	400 ↓	None	None	Hugging	1.576
	18	2	Academic	None	Parents	400 ↓	5 more	Bosom	Bosom	0.708
	19	2	Academic	Catholic	Mother	100 ↓	5 more	Intercourse	Intercourse	1.082
Type 4 (n=13)	2	2	Academic	None	Parents	200 ↓	None	None	hand	1.246
	4	2	Academic	Christianity	Alternately	400 ↓	3	Hugging	Intercourse	1.514
	5	2	Academic	None	Parents	400 ↓	None	None	None	1.450
	6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500 ↑	1	Hand	Shoulders	1.007
	8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500 ↑	4	Hugging	Shoulders	0.548
	10	2	Academic	None	Parents	500 ↓	None	None	None	0.826
	11	2	Academic	Buddhism	Parents	200 ↓	None	None	Hugging	0.811
	13	2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400 ↓	None	None	Hand	1.795
	24	1	Academic	None	Father	500 ↑	5 more	Hugging	Hugging	0.816
	27	1	Academic	Christianity	Parents	500 ↓	4	Hugging	Hugging	0.784
	29	3	Vocational	Christianity	Separately	200 ↓	3	Hugging	Hugging	0.683
	30	3	Vocational	Christianity	Mother	400 ↓	1	Hugging	Hugging	0.958
	32	1	Vocational	Christianity	Mother	400 ↓	4	Hand	Intercourse	0.980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항목들은 4개로 나타났다.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남자 친구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90).’와 ‘스킨십 위주로 즐기기 위한 만남보다는 나와 잘 맞는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만나는 편이다(표준점수=1.73).’, ‘사랑하는 사이라도 스킨십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37).’, ‘데이트 비용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씩 비슷하게 내야 남자 친구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21).’이었다. 즉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의사결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

대방의 존중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는 협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일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별 분석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서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진술문과 각 유형의 표준점수가 다른 유형의 표준점수보다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사람'의 Q 분류 결과와 면접 조사 내용, 대상

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이성교제 경험 관련 특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별 특성을 함축할 수 있는 유형의 명명은 질적 자료분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4인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자기규범적 선긋기형

제1유형으로 분류된 조사 대상자는 9명으로 이성교제 경험은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있었고, 성접촉 정도는 없음이 3명, 포옹이 5명, 성교 경험자가 1명이었다(Table 1).

제1유형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남자 친구와 스킨십이 진행되어 분위기 때문에 성관계까지 가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아서 선을 그어 놓는 편이다(표준점수=1.46).’, ‘남자 친구를 사귀어도 학업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표준점수=1.31).’, ‘대부분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쫓팔리고 싶지 않다(표준점수=1.25).’였다. 제1유형 대상자가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편이다(표준점수=-2.33).’, ‘나는 연애를 할 때 사귀는 것에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을 모두 제쳐 두고 남자

친구가 일순위가 되는 편이다(표준점수=-1.57).’, ‘남자 친구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48).’,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내 인생에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표준점수=-1.30).’, ‘남자 친구의 스킨십을 거절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편이다(표준점수=-1.18).’였다.

제1유형 대상자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에 비해 특이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와 스킨십이 진행되어 분위기 때문에 성관계까지 가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아서 선을 그어 놓는 편이다(표준점수의 차이=1.270).’였다. 타 유형의 대상자와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의 차이=-1.663).’였다(Table 3).

제1유형에서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15번 대상자(요인 가중치=1.421)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남자 친구가 5명 이상 있었고, 성접촉 정도는 포옹까지였다(Table 1). “저는 믿음이 생겨도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뚜렷

Table 2. Relationships among 4 Types

Variabl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			
Type 2	.57	1.00		
Type 3	.39	.34	1.00	
Type 4	.80	.65	.32	1.00

Type 1=self-normative line-drawing type; Type 2=pleasure-seeking negotiation type; Type 3=passive relationship maintenance type; Type 4=future-oriented satisfaction-centric type.

Table 3. Q-statements of Higher or Lower Agreement than Others in Type 1

Q-statements	Z-score	Average	Difference
14. I tend to draw a line to physical touch because I do not like the idea of having sexual intercourse at some stage of physical touch with boyfriend.	1.462	0.192	1.270
31. I tend to prefer a boyfriend whom I can easily control, regardless of age, when I select boyfriend.	-1.028	0.436	-1.464
28. When I listen to my friends talking about her sexual intercourse with boyfriend, I become curious and tend to try to have sexual intercourse.	-2.327	-0.817	-1.510
37. I think that I can have sexual intercourse if I come to love my boyfriend and have trust in him.	-1.476	0.187	-1.663

해요. 나 스스로의 보수예요.”라며 이성 교제에 대하여 허용적이었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그으면서 또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아 보호 차원에서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성행동에서 선긋기를 하였고, 인지적 평가 차원에서 성행동에 대한 현실적 손해평가와 학교생활 문제 등의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예측을 통해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였다. 성적 감정 차원에서 성적 욕구의 자연스런 인정과 조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협상 행동 차원에서 거절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외부 상호 관계 차원에서 또래와 파트너의 압박에 영향 받지 않으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성적 의사결정과 성행동을 하는 유형으로 ‘자기규범적 선긋기’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쾌락지향적 협상형

제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는 8명으로 이성교제 경험은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있었고, 성교까지 경험한 경우가 3명으로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보다 성교 경험자 수가 가장 많았다(Table 1).

제2유형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남자 친구를 사귀어도 학업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표준점수=1.96).’, ‘남자 친구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31).’, ‘남자 친구가 스킨십을 요구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굳이 미안한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25).’였다.

제2유형 대상자가 가장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의 스킨십을 거절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편이다(표준점수=-2.06).’, ‘나 자신에 대해 내세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기 어렵다(표준점수=-1.82).’, ‘남자 친구와 스킨십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은 부

모와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표준점수=-1.42).’,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이 될까 두려워 꺼리게 된다(표준점수=-1.13).’, ‘나는 성적 욕구가 느껴질 때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어 그 느낌을 인정하거나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다(표준점수=-1.13).’였다.

제2유형 대상자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의 차이=2.053).’,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내 인생에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표준점수의 차이=1.474).’이었다. 타 유형의 대상자와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 자신에 대해 내세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기 어렵다(표준점수의 차이=-2.414).’였다(Table 4).

한편 타 유형에 비해 표준점수의 차이가 1.0 이상 나진 않았지만 파트너의 성적 과거력 조사, 성행동의 제안, 파트너의 성행동 의도 파악과 원하지 않는 성접촉에 대한 전환 방법 등의 다양한 성적 협상 행동에 대한 진술문에서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에 비해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파트너와 성적 의사소통에서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보다 주도적으로 다양한 협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유형의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22번 대상자(요인 가중치=2.091)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남자 친구가 5명 이상 있었고 성접촉 정도는 성교까지 경험하였다(Table 1). “사귀는데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만나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사귄 수 있으니까 아무리 학업에 도움이 되는 애라도 제가 개에 대하여 감정이 없으면 못 만나죠. 남자 친구에게 맞추는 건 잘못 된 거 같아요. 성관계는 자기의 지에 따라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죠.”라며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주도하려는 모

Table 4. Q-statements of Higher or Lower Agreement than Others in Type 2

Q-statements	Z-score	Average	Difference
37. I think that I can have sexual intercourse if I come to love my boyfriend and have trust in him.	1.311	-0.742	2.053
16. I do not think that I would have a serious problem with my life or school life even if I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boyfriend.	0.222	-1.251	1.474
8. I do not have anything that I am proud of, and therefore find it difficult to be confident in my relationship with boyfriend.	-1.818	0.596	-2.414

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좋아하면 성관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걱정 없이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아 보호 차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주도하면서, 성행동의 인지적 평가 차원에서 사회 규범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좋으면 파트너와 친밀감 추구를 위해 얼마든지 성행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결과를 무시하는 감정 중심 대응 기전을 사용하고, 성적 감정 차원에서 성적 욕구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협상 행동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성행동을 다양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외부 상호 관계 차원에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성행동을 추구하여 ‘쾌락지향적 협상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수동적 관계유지형

제3유형으로 분류된 조사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그중에 2명이 편모와 살고 있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명이었으며, 성접촉 정도는 없음이 1명, 가슴 만지기가 1명, 성교 경험자가 1명이었다(Table 1).

제3유형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나 자신에 대해 내 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기 어렵다(표준점수=2.08).’, ‘나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 또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절하게 챙겨 주는 남자 친구를 선호하는 편이다(표준점수=1.72).’, ‘연상이 또래나 연하보다 나를 더 챙겨 주고 배려해 줄 것 같아 연상을 선호하는 편이다(표준점수=1.19).’였다. 제3유형 대상자가 강하게 반대한 항목은 ‘남자 친구와 스킨십을 할지 안할지 그리고 스킨십 방법에 대한 제안은 주로 내가 하는 편이다(표준점수=-1.79).’,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이 될까 두려워 꺼리게 된다(표준점수=-1.49).’,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이나 내 인생에 있어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표준점수=-1.45).’, ‘서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전의 경험들을 솔직히 털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표준점수=-1.34).’, ‘나는 고등학생이므로 어른이 되어 더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사귀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21).’였다.

제3유형 대상자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에 비해 특이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데이트 비용과 기념일의 선물을 남자 친구에게 받고 나면 남자 친구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표준점수 의 차이=1.321).’, ‘남자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킨십을 하는 편이다(표준점수의 차이=1.033).’였다. 타 유형의 대상자와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서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전의 경험들을 솔직히 털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표준점수의 차이=-2.021).’, ‘남자 친구와 스킨십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스킨십 방법에 대한 제안은 주로 내가 하는 편이다(표준점수의 차이=-1.552).’, ‘대부분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휩쓸리고 싶지 않다(표준점수의 차이=-1.332).’, ‘남자 친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남자 친구를 많이 좋아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의 차이=-1.142).’였다(Table 5).

제3유형의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3번 대상자(요인 가중치=1.576)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성교제와 성접촉 경험은 없었다(Table 1). “제가 잡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도 그렁고, 잘 맞추어 주고 잘 다루어 주는 남자 친구를 원해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사랑 받고 있다는 걸 잘 표현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위한 사람이 필요해요.”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로부터 채우려는 기대와 또래의 인정을 남자 친구를 통해 얻으려고 하였다. 요인 가중치가 두 번째로 높은 19번 대상자(요인 가중치=1.082)는 남자 친구가 5명 이상으로 성접촉 정도는 성교까지였다(Table 1). “그냥 제가 잘난 게 없어요. 이성 앞에서 당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요. 남자 친구가 하지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여자니까 자존심 때문에도 그렁고, 밝히는 애로 볼 수 있으니까”라며 수동적인 성적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아 보호 차원에서 파트너를 통해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여 파트너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성행동의 인지적 평가 차원에서 인지 평가 과정 없이 성적 감정 차원에서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협상 행동 차원에서 관계 유지를 위해 주로 참거나 파트너에게 맞추는 수동적인 성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하며 파트너의 관심을 스킨십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외부 상호 관계 차원에서 인기 있는 파트너를 사귀으로써 또래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또래의 기준과 남자 친구의 스킨십 압박에 의해 성적 의사결정과 성행동을 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3유형을 ‘수동적 관계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Q-statements of Higher or Lower Agreement than Others in Type 3

Q-statements	Z-score	Average	Difference
8. I do not have anything that I am proud of, and therefore find it difficult to be confident in my relationship with boyfriend.	2,076	-0,702	2,778
30. I tend to prefer boyfriend who can positively make expression before my friends to make me feel that I am loved and who kindly cares for me, so that I can be recognized as a popular person.	1,719	-0,132	1,851
31. I tend to prefer a boyfriend whom I can easily control, regardless of age, when I select boyfriend.	1,154	-0,291	1,445
35. I find it difficult to refuse my boyfriend's demand for physical touch when my boyfriend pays the dating expenses or when I am given the present from boyfriend on an anniversary day, etc.	0,249	-1,071	1,321
36. I tend to make physical touch to check whether my boyfriend likes me.	0,022	-1,011	1,033
14. I tend to draw a line to physical touch because I do not like the idea of having sexual intercourse at some stage of physical touch with boyfriend.	-0,318	0,785	-1,103
26. I tend to argue with my boyfriend about what made me disappointed or sad, even if I become angry.	-0,836	0,293	-1,129
3. I think that it is better to break up when my boyfriend often shows selfishness in his talk and action, even if I like my boyfriend much.	-0,526	0,616	-1,142
12. I tend to go ahead with physical touch naturally over time, in the order of holding hands, holding arms, kissing, etc.	-0,577	0,735	-1,312
29. Most of my friends say that they can have sexual intercourse if they and their boyfriends like it. However, I do not want to behave in the same way.	-0,565	0,767	-1,332
17. I tend to avoid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boyfriend for fear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or pregnancy.	-1,489	-0,133	-1,356
25. It is me who makes decision on whether to start the physical touch or how to make the physical touch in my relationship with boyfriend.	-1,788	-0,235	-1,552
24. It seems to me that talking about the viewpoint towards the sex or previous experience is helpful.	-1,345	0,676	-2,021

4) 제4유형: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

제4유형 대상자는 13명으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명, 없는 경우는 5명이었고, 성접촉 정도는 없음이 5명, 손잡기 2명, 포옹이 6명이었다. 성관계까지 경험한 경우는 없었다(Table 1).

제4유형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나는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서 떳떳하게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49).’, ‘대부분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하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러다고 해서 휩쓸리고 싶지 않다(표준점수=1.36).’, ‘남자친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남자 친구를 많이 좋아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22).’, ‘남자 친구를 사귀어도 학업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표준점수=1.13).’였다. 제4유형 대상자가 강하게 비동의한 항목은 ‘성적인 욕구는 억제하기 힘든 본능으로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는 조절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표준점수=-2.07).’, ‘남자 친구의 스킨십을 거절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편이다(표준점수=-1.68).’, ‘남자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킨십을 하는 편이다(표준점수=-1.42).’, ‘데이트 비용과 기념일의 선물을 남자 친구에게 받고 나면 남자 친구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표준점수=-1.36).’, ‘남자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편이다(표준점수=-1.31).’, ‘이성 관계에서 책임질 만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의지하고 싶지는 않다(표준점수

=-1.30).’였다.

제4유형 대상자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이 될까 두려워 꺼리게 된다(표준점수의 차이=1.636).’, ‘나는 고등학생이므로 어른이 되어 더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사귀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의 차이=1.197).’였다. 타 유형 대상자와 비교하여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성적인 욕구는 억제하기 힘든 본능으로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는 조절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표준점수의 차이=-1.306).’였다(Table 6).

제4유형의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13번 대상자(요인 가중치=1.795)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이성교제와 성접촉 경험은 전혀 없었다(Table 1). “남자 친구를 사귀는 때 부모님께 얘기해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성관계하면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성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부모와 학교의 규범에 따라 자신의 성행동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성 관계 책임진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성행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아

보호 차원에서 파트너에게 몰입하기보다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집중하고, 성행동의 인지적 평가 차원에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임신과 성병,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 등의 성행동에 대한 손해를 크게 평가하여 미래 성장을 위해 현재의 유희와 쾌락을 뒤로 미루고, 성적 감정 차원에서 성적 본능과 욕구의 통제와 조절을 강조하며, 협상 행동 차원에서 주로 거절을 사용하고, 외부 상호 관계 차원에서 파트너와 또래의 압박에 영향 받지 않는 유형으로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으로 명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 형성과 그에 따른 청소년기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특성의 의미와 특성별 중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으로 제1유형 ‘자기규범적 선긋기형’, 제2유형 ‘쾌락지향적 협상형’, 제3유형 ‘수동적 관계유지형’, 제4유형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의 4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4개 유형에 의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유형의 누적 설명변량은 62.18%로서, 4개 유형들에 의해 성적자기주장 현상이 비교적 잘 설명, 반영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Q 진술문의 범주화 결과 5개의 차원과 9개의 범주로 나뉘었고, 그 결과는 문헌의 다양한 성적 자기주장 정의와 일치하였다. 문헌의

Table 6. Q-statements of Higher or Lower Agreement than Others in Type 4

Q-statements of higher agreement than others	Z-score	Average	Difference
17. I tend to avoid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boyfriend for fear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or pregnancy.	0.755	-0.881	1.636
29. Most of my friends say that they can have sexual intercourse if they and their boyfriends like it. However, I do not want to behave in the same way.	1.364	0.124	1.240
13. As I am a high school student, I think that it is better to postpone dating friends of opposite sex because I can meet someone better when I become an adult.	0.288	-0.909	1.197
3. I think that it is better to break up when my boyfriend often shows selfishness in his talk and action, even if I like my boyfriend much.	1.223	0.034	1.189
22. I find it difficult to become honest with my feeling or admit my feeling when I have the sexual desire.	0.114	-1.011	1.125
4. I do not want held my boyfriend responsible even if he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1.301	-0.253	-1.048
21. Sexual desire is a difficult instinct to suppress, and I find it difficult to control my sexual relationship with boyfriend.	-2.066	-0.759	-1.306

성적 자기주장은 표면적으로 성적 의사표현과 협상의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것과는[12], 내면적으로 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추구하면서[18]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사결정의 권리와[19] 독립성의 개인 성격의 한 부분으로[20] 인지된 사회적 규범, 동기와 의도가 내재된 행동적 전략이며[14,21] 인지 평가 조절을 통한 성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22,23] 정의와 일치하였다. 또한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파트너 행동을 조절하고 파트너의 요구에 대항하면서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정의와도 일치하였다[24]. 이 결과는 의견의 총체적 합인 모집단의 범주화를 통한 구성 요인간의 모델화와 개념화의 통합을 이룬 것으로 Q 방법론의 변량분석 설계의 원칙에 해당된다[17].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은 자신 내면의 감정과 인지, 평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호 관계에서 주관적 인식을 통해 성적 자율성을 재구축하여 형성되는 성적 의사소통의 행동 전략이라는 속성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주관적인 중요도를 요인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4개의 유형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5개의 차원과 9개의 범주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범주간 관계와 구조를 보여 주면서 성적 자기주장의 어느 영역이 발달하였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하여 4개 유형의 대상자들은 신중한 성적 의사결정, 파트너의 존중과 경제적 동등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는 공통적 견해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교육의 보편화로[8,9]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제1유형 ‘자기규범적 선긋기형’은 자신의 성행동에 선을 그어 그 이상 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성행동으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손익과 결과 예측의 인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여 성적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성적 자기주장이 손익의 평가를 통한 성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정의[22]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규범적 선긋기형’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지향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안정 애착형일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거절의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5,18].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과 독립성은 성적 자기주장의 근본적인 요소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파트너와 협상 측면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였고 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경험이 부족하여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

기 때문이다. ‘자기규범적 선긋기형’은 이성교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유형으로 비록 성행동에 대한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성접촉 상황의 감정과 충동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실제적인 사례별 성적 의사소통과 협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마련되어야겠다.

제2유형 ‘쾌락지향적 협상형’은 성행동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파트너와 친밀감 추구를 최우선의 목표로 성적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 알고, 그것을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요구하였다. 성적 자기주장이 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 자부심, 떳떳함을 추구하며 성접촉 시 자신의 느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와[18] 가장 일치하는 유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성적 자기주장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거절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는데[15,18] ‘쾌락지향적 협상형’의 경우 거절뿐만 아니라 성행동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것은 여성 청소년의 성행동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육이 성적 자기주장의 거절과 금욕의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성행동에 대한 손익,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청소년으로서 성행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성적 의사결정 모델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지를 재구축하는 감정 중심 대응 기전[23]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이 감정 중심 대응 기전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성행동에 대한 손익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지 평가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교육이 필요하겠다.

제3유형 ‘수동적 관계유지형’은 외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형으로 친구들이 높이 평가하는 남자 친구를 사귀어 자신감을 얻고, 또래의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남자 친구를 통하여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여 파트너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스킨십을 이용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하여, 파트너가 떠날까 봐 불안하여 원하지 않는 위험한 성관계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4,5] ‘수동적 관계유지형’은 이와 같은 이유로 수동적인 성적 의사소통을 하였다. 불안정 애착형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고, 이것이 성적 자기주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5]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수동적 관계 유지형’은 약한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면의 성적 의사결정의 인지 평가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여 또래 친구와 파트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규범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성교육이 필요하겠다.

제4유형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은 성욕구의 자연스러운 인정이 어렵고, 통제와 이성적 조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행동의 즐거움을 미래를 위하여 뒤로 미루는 유형으로 사회규범의 내재화와 미래에 대한 인지 평가 영역이 발달되어 있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성행동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를 내면화하는 특성은 건강신념모델, 합리적 행위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사회학습이론, 동기 이론 등에서 신념, 주관적 규범, 태도, 의도 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였다[14,21]. 그리고 인지 평가 영역의 발달에서 겉으로는 제1유형 ‘자기규범적 선긋기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평가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기규범적 선긋기형’은 현실적 손익 평가 영역에서 성행동의 즐거움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저울질하여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였는데,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은 미래 평가 영역에서 손해 부분을 더 크게 평가하고 자신의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성적 의사결정 모델에서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은 인지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그 상황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평가 부분[23]과 일치하고, ‘자기규범적 선긋기형’은 그 전 단계인 자신의 목표와 맞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은 현실적 손익 평가와 대응 방법 모색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추구를 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인지 평가 영역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평가가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에 비해 이성교제의 경험이 적은 편으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실질적 대응 방법 모색은 부족하였다. 그래서 실제 상황적 맥락 속에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결정과 협상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은 실제의 구체적 사례별 전략과 함께 다양한 성적 의사소통과 협상의 방법을 교육하여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응력과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개념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의 깊이 있

는 이해를 도모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1유형 ‘자기규범적 선긋기형’, 제2유형 ‘쾌락지향적 협상형’, 제3유형 ‘수동적 관계유지형’ 제4유형 ‘미래지향적 만족지연형’의 4개의 유형을 확인하면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와 주관적 감정, 인지 평가의 의사결정, 성적 의사소통 행동의 통합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의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론 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여성 청소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실천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후속 연구를 이끌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인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개념의 구성 요인을 근거로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성건강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prehensive survey on adolescents'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 in 2008 [Internet]. Seoul: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2009 [cited 2009 March 17].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2. Kimbaek AR. Sexualized teenagers' sex culture and peer sexual violence. *Anti-Sexual Violence*. 2010;1:43-47
3. Suh KH. The moderat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9(1):147-162.
4. Whyte J. Sexual assertiveness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women: Unwanted sex, survival, and HIV risk.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6;23(4):235-244.
5. Son SY, Lim SM.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sent to unwanted sex: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011;17(2):17-36.
6. Kim JH. Conflicts and negotiations in teenage girls seen through experience of intersexual activity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7. Kong MH. Sexual scripting of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 women who have participated in 'compensated dates'.

- Family and Culture. 2003;15(3):135-156.
8. Chang SB, Lee SK, Kim YR. Effects of a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i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33(5):659-667.
9. Kang D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 through reality therapy and its effects [master's thesis]. Cheong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5.
10. Korea Women Link. Assertive sexuality, safe sex, owned body, pleasant sex. Seoul: Korea Women Link, Family and sex counselling of Korea; 2001.
11. Gullette DL, Wright PB, Booth BM, Feldman Z, Stewart KE. Stages of change, decisional balance, and self-efficacy in condom use among rural African-American stimulant user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2009;20(6):428-441.
12. Morokoff PJ, Quina K, Harlow LL, Whitmire L, Grimley DM, Gibson PR, et al.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7;73(4):790-804.
13. Turchik JA, Probst DR, Chau M, Nigoff A, Gidycz CA. Factors predicting the type of tactics used to resist sexual assault: A prospective study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07;75(4):605-614.
14. Bracar P, Zvezdana Demovsek M. Validation of questionnaire estimating predictors of behavior intention to engage in first sexual intercourse among eighth-grade pupils. *Croatian Medical Journal*. 2009;50(5):483-491.
15. Salazar LF, DiClemente RJ, Wingood GM, Crosby RA, Harrington K, Davies S, et al. Self concept and adolescents' refusal of unprotected sex: A test of mediating mechanisms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Prevention Science*. 2004;5(3):137-149.
16.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xual issues to be resolved with concerted effort [Interne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1 [cited 2001 May 29]. Available from: <http://library.moe.go.kr>.
17. Kim HG. Q-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s Books; 2009.
18. Lee SK.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2):212-228.
19. Rickert VI, Sanghvi R, Wiemann CM.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02;34(4):178-183.
20. Twenge JM. Changes in women's assertiveness in response to status and rol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31-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1;81(1): 133-145.
21. Bazargan M, Stein JA, Bazargan-Hejazi S, Hindman DW. Using the information-motivation behavioral model to predict sexual behavior among underserved minority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2010;80(6):287-295.
22. Hulton LJ. The application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to adolescent sexual decision-making.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001;24(2):95-115.
23. Norris J, Masters NT, Zawacki T. Cognitive mediation of women's sexual decision making: The influence of alcohol, contextual factors, and background variables.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2004;15:258-296.
24. Pulerwitz J, Amaro H, De Jong W, Gortmaker SL, Rudd R. Relationship power, condom use and HIV risk among women in the USA. *AIDS Care*. 2002;14(6):789-800.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exual assertiveness represents a strategy that can prevent dangerous sexual behavior of female adolescents. This concept can have ambiguous conceptual meaning and is consequently confined to rejected-oriented tactics in sex education.

■ **What this paper adds?**

This paper presents classification of 4 types of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adolescents by looking into integrated structures and patterns of attributes that can be observed in sexual assertiveness behavior.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basis for tailored sex education for different developmental phas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emale adolescents that is based on approaches to each type of sexual assertiveness.